



# 농산물 포장재 연구개발에 전력

## 다양한 경험 통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

김수일 / (주)유니크바이오텍 부사장

**한** 용교포장인상 연구개발부문에서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것이고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잡을 것이 없는 것이기에 이를 계기로 포장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라는 임무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김수일 (주)유니크바이오텍 부사장은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사업인 “농산물의 저온저장 및 유통을 위한 환경친화형 내수성 종이포장재 개발”을 주제로, 저온 유통시스템 하에서 유통되는 신선 농산물 및 냉동·냉장식품의 포장을 위한 생분해성의 내수성 생고분자 코팅 종이 포장재, 저온 유통시스템에 적합한 최적의 내수성 골판지 상자 등을 개발하고 식품포장지 코팅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제9회 한용교 포장인상 연구개발부문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1989년 대구대학교 식품공학대학원에서 식품포장공학을 전공한 후 식품개발연구원, 해태제과(주), 서울우유협동조합, 경북과학대학, (주)유니크바이오텍에 이르기까지 16년째 국내 포장 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1999년도 포장기술사자격증을 취

득, 2001년도에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농산물 포장용 골판지 상자 설계”라는 논문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지난 1994년에는 국내 최초로 개설된 경북과학대학 포장과 교수로서 10여년간 재직하면서 포장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전공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열악한 포장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중소기업청 기술교육프로그램, 노동부 재취업프로그램, 산업자원부 포장인력 양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 13억원의 재정지원

을 받아 포장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체의 포장기술개발 지원과 시험분석업무를 대행한 김 부사장은 열악한 국내 포장기술 교육의 인프라를 개선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2002년 (사)한국포장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한 김 부사장은 연구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는 최근 5년간 농산물 관련 논문 및 연구 보고서를 약 27건 발표했으며 기능성 포장재 개발 관련 특허 4건을 비롯하여 총 14건을 출원했다. 현재는 농산물의 저온저장 및 유통을 위한 환경친화형 내수성 종이 포장재와 버섯류 신선도 연장용 기능성골판지상자를 연구하고 있다.

“전면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에 무방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오직 품질향상을 통한 대외 경쟁력 향상이 최우선”이라는 김 부사장은 “그러나 현실은 수확 후 품질열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포장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공산품은 포장개발전담부서를 두어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지만 농산물산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포장개발 전담기구가 전혀 없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김 부사장은 “농산물 포장개발전문가는 농산물의 품질열화특성과 포장재의 기능 및 생

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적극적인 투자 없이는 괄목할 만한 연구결과가 도출하기 힘든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어려운 국내 환경속에서 그는 연구소, 제과 및 유음료제품 포장개발, 대학교수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광동규 (주)유니크 바이오텍 대표이사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골판지, 필름, 용기 등의 기능성 바이오포장재를 개발할 수 있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부족한 농산물포장분야에서 김수일 부사장은 단연 돋보이는 인력이다.

“연구개발이란 투자와 시간, 노력의 3박자가 딱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김 부사장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앞서 3박자의 하모니가 얼마나 잘 맞았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국내 농산물포장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산물 포장용 기능성 포장재 개발에 (주)유니크바이오텍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연구를 통해 농산물포장산업의 한 획을 긋고 있는 김수일 부사장.

그의 또 다른 도전을 기대하며 계속적으로 농산물포장연구개발분야를 선도 하길 기대한다. ☐

이한얼 기자